

개관 80주년의 피날레, 100만 번째 '과학관의 별'을 찾아라!

- 국립중앙과학관, 2020년 코로나 이후 전국 최초 '밀리언 클럽' 재입성 초읽기
-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 8월 누적 3,500만 명 이어 '연간 100만 명' 겹경사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인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이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 국공립 과학관 최초로 '연간 관람객 100만 명(밀리언 클럽)' 달성이라는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두며 2025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2월 9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 약 97만 명을 기록, 대망의 '100만 명' 고지까지 불과 3만여 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람객이 급감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모든 국공립 과학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 시대를 다시 여는 쾌거가 될 전망이다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에게 역사적인 해다. 1945년 개관 이래 80주년을 맞이한 것은 물론, 지난 8월 7일에는 1990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래 '누적 관람객 3,500만 명'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 여기에 '연간 100만 명' 달성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과학관은 100만 명 달성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크리스마스의 기적: 100만 번째 과학관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를 전격 가동하며, 주인공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준비했다. 영예의 100만 번째 입장객(과학관의 별)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과 국립중앙과학관 연간 회원권, 축하 꽃다발이 증정된다.

특히, 과학관 측은 관람객들이 100만 명 달성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방문해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과격적인 '징검다리 이벤트'를 마련했다.

'미리 터지는 대박', 100만 명 돌파 전이라도 행운은 계속된다. 98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 99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과 함께 각각 연간 회원권, 꽃다발을 증정한다.

'매일매일 오픈런', 카운트다운 기간(12.16.~달성일) 동안 매일 선착순 방문객 10명에게는 따뜻한 핫팩과 함께 '연간 회원권'을 깜짝 선물하여, 아침 일찍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확실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운영정책과 김석형 과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20일(토) 전후 달성이 유력하지만, 최근 평일 단체 관람과 연말 나들이객이 급증하고 있어 예상보다 빠른 18일(목)에 조기 달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망설이는 순간 행운의 주인공을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달성 유력일인 12월 20일(토)에는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봇댄스 공연'과 '별의별 과학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100만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한 관람객들의 즐거운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에 서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이 2020년 코로나 이후 전국 최초로 다시 연간 100만 명의 국민과 만나는 뜻깊은 순간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겨울, 과학관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추억과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음 주부터 홈페이지와 꿈이광장(중앙광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누적 관람객 현황을 공개하며 D-Day까지의 긴장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석형 (042-601-7981)
		담당자	주무관	이수영 (042-601-785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